

Global Top Player

# 한화건설

## 이근포 사장 Interview

탁월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던 한화건설. 작년에는 수주 4조원을 돌파하고 매출 2조 3천 5백억원을 달성해 시공능력 11위로 뛰어올랐으며, ENR지가 발표한 Global Contractor 108위에 등극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설회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한화건설에게 2010년은 더욱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다. 7400억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인 제3경인고속도로를 주간사로 나서 성공리에 개통시켰으며 하반기에도 2,000억 규모의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사업'과 375억 규모의 '경남창원과학연구북원파크'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는 등, 공공사업 수주 1조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올해 유독 심해진 건설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한화건설의 이근포 사장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환경보 회장이 방문해 비결과 전략 등에 관한 대담을 나누었다.

정리/사진 · Willy기자

▶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요즘 가장 고민하시는 한화건설의 현안은 무엇인지요.

- 한화건설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회사 경영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주택경기가 200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숨어있던 악재들이 터지면서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건설경기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의 발주물량 감소, 토목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위축된 건설경기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화건설은 주택과 토목 해외사업 비중이 고르게 나뉘어져 있어 현재 건설업이 처한 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질개선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한화건설이 최근 선연한 글로벌 TOP100 진입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외형적 규모만은 아닐텐데요.

- 일례로 요즘 학생들을 보면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격이 커진만큼 그 몸을 지탱하고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체력, 즉 체질 자체가 변해야 진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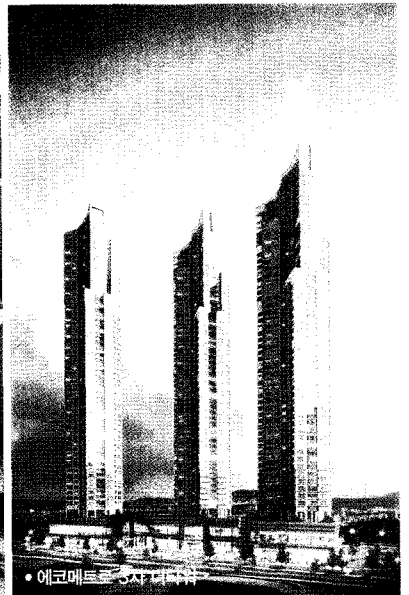
회사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에 한화건설은 지난 10년간 국내 대형건설사로 성장한 조직의 규모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경영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만의 차별화된 경영 시스템인 HWMS(Hanwha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분야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HWMS는 "모든 현장을 표준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장 준비단계부터 현장 수행, 종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VE(Value Engineering)혁신요소를 찾아내고 합리적인 공정을 이끌어내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화건설은 HWMS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실제시공에 기술혁신요소와 공학적 분석결과를 접목, 건설현장의 선진화를 리드할 계획입니다.

▶ 현재 국내 건축경기의 침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돌파구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 한화건설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Global Top Player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 수주 6조원, 매출 4.5조원의 Global Top 100 건설사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첫째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공공/재개발/해의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확대하고, 둘째



•보정역 율화 꿈에 그린



•에코메트로 서귀포시



2010 아이스크림데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화건설  
제로에너지슬라하우스 기술이전 조인식 및 양해각서 체결식  
2010년 3월 18일(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기술이전 및 양해각서 체결식

신성장동력 육성, 공공실적과 랜드마크 확보로 사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셋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인프라를 선진화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0년 전 3,000억원 정도의 중소 건설사에 불과했던 회사를 10배 이상 성장시킨 장본인으로 업계에서는 이근포 사장의 역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2000년대 초반은 IMF 사태로 불황기를 맞았던 건설시장이 조금씩 정상화 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고유의 주택 브랜드를 런칭하고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펼칠 시기였습니다. 한화건설은 철저한 시장분석과 상품개발을 통해 갤러리아 팰리스, 오벨리스크 등의 고급주상복합빌딩과 고품격 친환경 브랜드인 '꿈에그린'을 런칭했습니다. 특히, 민간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인 인천 에코메트로 12,000세대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3만여 세대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꿈에그린'은 100% 분양신화를 이어나감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친환경 아파트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는 동안 5백여명 남짓했던 임직원수 역시 1천 6백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화건설이 규모나 인지도, 시공능력 등 전 부문에서 업계 선두권 건설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한화건설은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도 앞장서는 기업이 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장님께서 추진하

고자하는 목표는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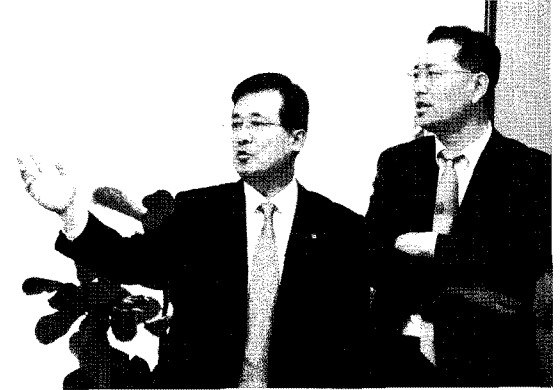
- 직장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다 보니 일터가 즐거워야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럴 때 창의성과 역량도 최대한 발휘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당연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야근도 많이 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피로가 누적되면 사기가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임원회이나 직원간담회 등에서 업무스트레스 없이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을 만들자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말로만 그치면 안될 것 같아 취임 이후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입니다. 한여름에는 아이스크림데이, 말복 수박데이 행사 등을 마련해 무더위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잠시나마 시원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연말에는 '꿈에그린산타'가 해외현장근무자 가정을 방문해 가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감사메세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팀별로 '조찬 도시락 미팅'을 갖고 사원부터 팀장급 직원들까지 직급별 고충과 희망사항들을 경청해서 경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단순한 일터를 넘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즐거운 일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의사소통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장님만의 독특한 해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평소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직원들의 사기(士氣)와



한화건설의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근포 사장



현재 진행중인 한화건설의 사업에 대해 한경보 회장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근포 사장



이근포 사장은 늘 이른 새벽에 출근해 주요 현안을 검토한다.

‘전사에 걸친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강한 자신감과 전사에 걸친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늘어난 경력사원들을 조직에 빠르게 융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을 위한 ‘즐거움 직장만들기’ 프로그램과 온라인 사내보인 ‘e-뉴스레터’ 운영을 통해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사적인 팀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화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도 적극 나서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대표적인 사업과 미래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한화건설은 사업본부별로 장애아동 지원사업, 무료급식지원, 저소득층 아토피아동 주거환경개선, 문화예술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봉사실적을 공시하고, 우수봉사자는 포상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사업본

부장을 맡고 있던 2005년부터 한화건설은 ‘사랑나눔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고친 집이 5백 채가 넘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노숙인들을 위해서도 건설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견기관들과 손잡고 섬터를 지어 기부합니다. 서울시 곳곳에 지은 ‘드롭인센터’는 우리 회사에서 지은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집을 고치는 일입니다. 이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단순히 금전적 후원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된 공헌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노숙인 등 자력으로 일어서기 힘든 분들에게 주로 초점을 맞춰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 현재 우리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화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녹색성장의 전략이나 구상은 무엇인가요.

- 한화건설은 올 3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제휴를 통해 기존 주택대비 85%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주택기술 ‘제로에너지 솔라 하우스’ (ZESH||: Zero



풍부한 현장경험도 갖고 있는 이근포 사장은 주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한다.

Energy Solar House)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올해 분양한 남양주 별내 꿈에그린, 인천 에코메트로 3차 더 타워 등에 태양광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20% 에너지 절감 주택을 선보이고 있으며, ZESH II 기술을 통해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화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단독주택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환경 미래 주택기술을 2015년까지 공동주택에서도 10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설계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5년 100% 에너지 제로 주택을 의무화하는 정부정책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한화건설의 '친환경 저에너지 기술'에 대한 의지를 선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기술력 NO.1 한화건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연구소를 운영,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에코그린 (ECO GREEN) TFT를 발족했습니다. 에코그린 TFT는 기존 에너지 절감 및 부하 감소는 물론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이용한 친환경 미래주택 기술개발 요소를 다양하게 발굴 개발하여 꿈에그린에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제안시스템' 및 정기적인 전사기술교류대회 개최 등 온프라인의 다양한 기술개발 정책으로 본사와 현장의 전임직원에게 신기술 개발과 제안의 장(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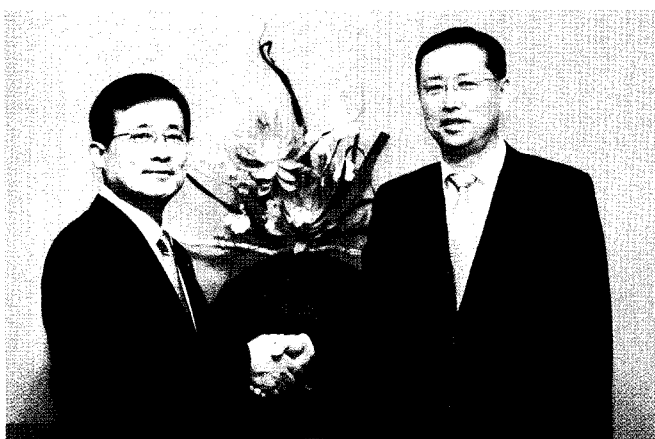
한화건설은 창문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개발에 성공해 업계 및 학계의 주목을 받은바 있습니다. BIPV 기술은 태양광발전의 전기기술에 외장재 기술까지 두가지를 완전히 충족시켜야 하는 분야입니다. 한화건설의 BIPV 기술은 다양한 건축물 입면 표현은 물론 자연 채광 확보 및 건물 냉방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저하시키는 신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한 '막여과 고도정수처리기술'은 환경부로부터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아울러 국내 최초로 수처리 분야 환경 민자 사업자로 지정되어 군포, 화성, 파주 등 환경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내 환경 사업의 선두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한화건설 임직원들은 현재 회사의 발전상을 실감하고 자부심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으로서 그 같은 한화건설의 변화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도 클텐데요

- 10년전 건축사업본부장으로 부임했을 때 한화건설의 임직원 수는 500여명에 지나지 않고 시공능력평가순위는 30위권



인천시 에코메트로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있는 이근포 사장



건설업계의 위기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한화건설의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본 이번 대담은 지난 7월 15일 이루어졌다.

중반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입사원들을 직접 채용하면서 "자네들이 차장급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회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격려한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한화건설은 연평균 20%에 달하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고, 공언한 대로 2010년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에 등극했으며, 임직원 수는 1,6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진행되는 전자 체육대회에서 한 자리에 모인 1,600여명의 임직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가끔 10여년 전에 입사해서 차장급으로 활약하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면, "이제 자네들이 임원이 될 때 쯤이면 우리회사는 정말 세계적인 건설사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곤 합니다. 한화건설이 지금까지 이뤄온 성장은 저를 포함한 몇몇 경영진만의 공이 아닌 사원부터 사장까지 전임직원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인내하고 노력해 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직원이 하루 하루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화건설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리더로 명확한 비전과 더불어 똑심있게 밀어붙이는 능력 또한 타고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원들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장이 되고 싶은지요.

- 돌이켜보면 34년 동안 건설업 외길에 몸을 담아 왔습니다. 또 그 짧지 않은 시간동안 현장은 저의 고향이자 스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직접 현장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건설회사의 근간이 되는 핵심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장경험을 근간으로 한 "실무형 리더"라는 평가는 틀리지는 않은 것이겠죠. 하지만 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똑심있게 밀어 붙이는 리더십"은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를 경영하는 일과 현장과 사업 본부를 관리하는 일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건설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도 예전과 같이 "밀어 붙이는 리더십"은 임직원들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시너지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많은 재량권을 본부장과 임원진, 현장소장에게 부여하고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역할은 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고, 다양한 교육 등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을 따라 임직원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짧지 않은 시간 계속 어려운 질문만 한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러나, 덕분에 우리들 모두가 궁금했던 한화건설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근포 사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모든 전략과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산업의 재해예방과 안전기술의 선진화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